

高麗時代 石造佛像 研究

金 理 那

I、序 論

高麗時代에는 建國初부터 많은 寺院이 건립되고 불상도 함께 造成되는 등 활발한 佛事가 전개되었다. 太祖王建은 자신의 開國大業이 佛法의 加護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어 高麗라 國號를 정한 다음 해인 九一九년에 開京에 法王寺 王輪寺 慈雲寺 文殊寺 圓通寺 地藏寺 등 一〇大寺를 창건한 것이라든지 ① 後百濟를 멸망시킨 九三六년 그 遺民들을 慰諭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도 겸하여 忠淸南道 連山에 開泰寺를 세우고 太祖가 친히 願文을 쓴 것도 당시의 佛事활동의 양상을 말해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② 高麗의 佛敎는 또한 宗派의 발전에 있어서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어 갔다. 즉 新羅末期에서부터 豪族과 결합하여 대두된 禪宗系승려들의 활약이 高麗初에도 계속되었고 ③ 光宗代에는 中央集權체제의 강화에 따라 敎宗系의 華嚴宗 및 法相宗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④ 一部 群小土豪들과 결합된 法相宗系 불교나, 民俗 및 土俗信仰의 인 요소와 결합된 神祕的 呪術의 경향이 敎宗系의 佛敎에 반영되어 다양한 성격을 띠며 발전하였다. ⑤ 한편 學僧들의 中國유학도 있었으니 그중에는 高麗 佛敎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大覺國師 義天(一一〇五~一一〇五)을 꼽을 수 있으며 그에 의해 天台宗이 成立되었다. ⑥ 또한 普照國師 知訥(一一五八~一二一〇)에 의해 曹溪禪宗의 기틀이 잡히면서 敎·禪 융화의

전통이 세워지는 등, 高麗의 인 禪宗 佛敎의 思想的인 체계가 다져졌다. ⑦ 高麗는 또한 學國의 인 차원에서 大藏經의 雕版을 시작하였다. 즉 宋·遼等地에서 經·章·疏를 모아 一世紀에는 高麗初 雕大藏經(一一〇九~一一〇八七간행) 및 續藏經(一一〇七三~一一〇九〇간행)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 대부분은 一二三二년의 蒙古의 兵火에 사라졌으며 다시 蒙古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존의 木版 八萬大藏經을 雕造, 一二三六년에 완성을 봄으로써 外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염원과 文化國의 긍지를 세우고 佛의 威力과 王權 強化의 확립을 도모하였다.

高麗時代에는 또한 각종 佛敎行事가 王室·貴族 및 一般大衆 등 폭넓은 계층에서 이루어졌으니, 燃燈會·八關會·仁王百高座道場 등 祈福的인 혹은 護國的인 法會나 佛寺의 傳統的인 菩薩戒 또는 經行 같은 佛法의 傳授와 관련된 여러 佛敎儀式이 盛行하였다. ⑧ 그리고 이러한 儀式은 많은 공양과 布施를 통한 낭비와 폐단도 따랐으며, 宗敎행사인 동시에 일종의 文化祭의 성격을 띠면서 재래의 토속 신앙인 山岳川神, 龍神 숭배 같은 요소와 융합되어 고려 불교 특유의 성격으로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성격을 띠면서 융성한 고려 불교였으나, 그 예배 대상인 佛像의 造成에 있어서는 우수한 예가 별로 많이 전하여 오는 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많은 戰亂에 의한 손실도 있었을 것이며 禪宗계통의 佛敎에서는 參禪과 師資相承이 重視됨에 따라 造像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난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高麗의 護國佛敎의 인 佛事가 大藏經 雕版에 오랜 노력을 기울인 것도 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高麗시대의 佛像 조각이 남아있는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지방으로 널리 흩어져 있어 統一新羅시대의 불상이 대체로 慶州나 그 주변의 慶尙道 지방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시대의 신앙 경향이 귀족 중심적이던데 비하여 고려시대에는 基層民까지 넓게 확산되어 믿어졌던 점이나 首都가 開京으로 옮겨진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고려의 불상은 또한 크기도 大形化하여 石佛에서는 一〇m가 넘는 예도 있다. 金屬이 재료인 경우에는 金銅과 더불어 大形 鐵佛도 많이 남아 있는데, 대체로 신라의 전통을 잇는 고려 전기에 鐵佛이 많은 반면, 우수한 金銅佛中在銘 佛像은 後期에 많이 남아 있으며 中國 遼·宋의 영향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高麗의 佛像과 中國 佛像양식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九세기 중엽의 唐代 廢佛令이래 造像과 經典중심의 신앙에서 禪宗의 불교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며 高麗가 건립되는 一〇세기 초에 唐은 망하여 五代로 이어졌다. 따라서 中國은 정치적으로 혼란기를 거듭하였고 불교를 통하여 주변국가에 미치던 영향력도 감소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五代·遼·宋에서 많은 經本이 高麗에 전해져서 大藏經雕版에 공헌하였고 宋에서도 夾紵佛像이나 塑造像이 전해지기도 하였으나, 遼의 세력이 커지면서 공식적으로는 오히려 宋보다는 北方의 遼, 그후에는 金, 元과 밀접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宋과는 소규모로 교류하거나 私貿易을 통하여 왕래하였다. ⑪

이러한 기록과 현존하는 高麗의 佛像양식과를 연결시켜 볼때에 金銅佛像에서는 대체로 중국의 영향이 엿보이는 것 같다. ⑫ 石造佛像의 경우에는 初期의 몇 예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영향을 찾아볼 만한 대표적 인 불상도 매우 적고 또 실제로 像을 확인하여 고찰하기 어려운 在北의 例들의 경우도 있다. ⑬ 한편 中國의 佛像研究에 있어서도 五代 이후 遼·宋代의 佛像양식의 區分이나 特徵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편이며, 대부분은 木造菩薩像研究에 편중되어 있다. ⑭ 특히 石造佛像의 경우에는 四川省이나 杭州지방의 石窟彫像이 알려져 있으나 ⑮ 그에 대한 報告書를 접하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高麗의 불상과의 관계를 論한다는 것은 서로의 양식적인 類似性을 지적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고려의 佛像중에서도 石造佛像은 그 표현에 있어 대체로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여 기존의 新羅의 조각 전통을 기반으로 변형시키면서 받

진하였으며 統一新羅時代에 비하여는 外來양식의 受容에 별로 적극적 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경향의 배경으로 앞서도 언급했듯이 高麗佛敎가 지니는 地方中心의 성격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토착적인 불상양식이 형성된 점과, 또한 公式的인 경로로 중국에서 전해오는 佛像양식이 王都 開京이나 주변지역을 떠난 地方에 어느정도까지 보급되어 模本으로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게 되나, 구체적인 사료의 뒷받침이 없이는 규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高麗後期에 受容된 元의 喇嘛佛敎와 그 미술의 영향이 王室중심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佛像양식의 主流를 형성하지 못한 것도 이와 같은 고려불교의 성격이나 불상양식 발전에 참고가 될 것이다. ⑯

또한 高麗의 石造佛像중에는 外來양식의 영향에 예민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前代인 統一新羅期의 佛像傳統과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마치 在來의 傳統的인 民俗신앙과 결합된 듯한 특이한 佛像形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반대중들이 각 지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石材로서 造像을 하였을 때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⑰

고려의 佛像조각을 論함에 있어 이미 二〇여년전에 黃壽永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후 많은 새로운 자료들이 조사되었으나 그후 오랫동안 체계적인 연구에는 별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⑱ 近年에 다시 몇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어 그 대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⑲ 필자에게 주어진 論題인 고려시대의 圓刻 石造佛像에는 우수한 像도 별로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像들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거나 그상과 관련된 기록이나 銘文이 없는 편이므로 좀더 명확한 양식적인 체계를 세운다거나 구체적인 고찰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이 논고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있는 고려시대의 圓刻 石造佛像을 중심으로 하여 우선 통일신라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佛·菩薩形의 몇가지 類型과 그 변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적인 流派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공통된 성격을 보여주는 강원도 溟州지역의 보살상이나 忠南일대의 巨石佛·菩薩像들을 통해 고려적인 불상양식 형성의 일면을 이해하

고자 하며, 이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특이한 불상형들의 예를 찾아서 土俗의인 지방신앙과 결합하여 예배된 듯한 상의 특징을 살펴 보아 고려 불상양식 발전의 다양한 요소를 이해하고자 한다.

II、統一新羅 彫刻 傳統의 繼承과 變形

고려의 불상을 대략 살펴보면 그 분포지역이 광범위하고 상들의 표현도 다양하여 일정한 표준형의 체계를 세우기가 어렵고 또한 서로의 연관성을 찾기도 막연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려초기의 像들 중에는 역시 그 前代인 통일신라로부터 이어지는 佛像樣式과 연결되는 像이 많이 남아 있다. 물론 신라말기라고 불리우는 像과 고려初期라고 생각되는 像과의 양식적인 차이가 애매하여 그 구분에 문제점이 있으나 本稿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像들을 중심으로 계보를 세우 보면서 고려양식의 전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양식 계열의 佛·菩薩像에는 유감스럽게도 상자체에 銘文이 있는 예가 거의 없다. 간혹상이 남아있는寺院이나 寺址의 건립연대가 알려진 경우도 있으나 그 像과 寺院의 年代가 同一時期라는 확증을 찾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像들은 결국 양식적인 특징에 준하여 고려로 추정되는데 光背·木尊像·臺座의 구성이 통일신라기상의 형태를 답습하면서도 도식화에 흐르거나 간략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으며 혹은 장식적인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는 예도 발견된다.

(1) 石佛坐像

고려초기에 유행한 佛坐像형식으로는 통일신라 後期の 전통을 이어 智拳印이나 觸地印의 手印을 한 예가 많으며 특히 경상도 및 강원도 지역에 많이 남아있다. 그 대표적 인 예로 慶尙南道 禮泉에 있는 靑龍寺의

智拳印을結한 毘盧舍那佛坐像을 들 수 있다. (보물 四二五호, 圖一) 이 절에는 石佛坐像이 二軀가 있는데 統一新羅期로 추정되는 觸地印의 佛坐像(보물 四二四호)보다는 이 毘盧舍那佛坐像이 조각기법면에서 훨씬 뒤떨어진다. 佛身의 비례나 옷주름의 처리면에서도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당당함이나 자연스러움이 없어지고 형식화가 현저하여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으나 銘文이나 문헌적인 뒷받침에 의한 것은 아니다. 특히 계단식으로 扁平한 옷주름 처리는 신라말기부터 나타나는 특징으로 慶尙北道 奉化 鸞棲寺의 毘盧舍那 불상이나 義城 孤雲寺의 觸地印 佛坐像에서 ⑳ 보이는 주름표현이 고려시대에 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얼굴 표정은 부드러운 면에서도 生氣를 잃었고 네모난 臺座나 上臺石에 雕飾된 蓮花文의 장식성 그리고 中臺石과 下臺石에 보이는 眼象의 陽刻된 귀꽃모양의 三山形花文 표현이 이상을 高麗初로 내려볼 수 있는 요소로 생각된다.

統一新羅말기의 불교활동의 중심지 중에는 江原道지방을 빼놓을 수 없다. 襄陽郡 禪林院址에는 六、二五戰禍에 사라진 貞元二〇年銘(八〇四年)의 銅鐘의 출토를 비롯하여 ⑳ 石塔·浮屠와 弘覺禪師(八八六年沒) 塔碑(보물 四四六호) 및 三層石塔(보물 四四四호)을 포함한 유적들이 전하여 오고 ㉓ 陳田寺址에는 塔(국보 一一二호)과 浮屠(보물 四三九호) 등 九세기 통일신라 미술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㉔ 또한 溟州지방은 九山禪門종의 하나인 梵日(八一〇~八九四)을 開山祖로 하는 閻幅山派활동의 중심지로서 신라왕실계의 豪族 세력의 뒷받침으로 발전하여 고려초에도 그 세력을 떨친 곳임을 알 수 있다. ㉕

이 江原道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려의 불상중에는 후에 논의할 江陵지역의 寒松寺나 神福寺址의 보살상등도 중요하거나와 原州지역에서 출토된 많은 佛像이 傳하고 있으며 그중 景福宮 勤政殿 回廊으로 옮겨져 진열된 智拳印을結한 石造 毘盧舍那佛坐像이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圖二) ㉖

이 佛像들은 근본적으로 통일신라기의 石造毘盧舍那佛坐像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通肩의 法衣나 結跏趺坐한 양다리사이에 부채꼴 모양으로 접혀져서 늘어진 모습 및 臺座의 구조나 각 부분에 雕飾된 蓮花紋·奏樂天 및 사자표현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진열된 석조비로사나불좌상(圖三)같은 신라의 像과 비슷한 계보의 模형을 따르면서 고려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原州의 像에서는 法衣의 주름표현이 매우 특징이 있어 여러결의 물결같은 주름이 율동적으로 처리되었고 그 흐름이 佛身과 法衣주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장식적인 효과에 더욱 관심이 있어 보인다. 즉, 통일기 불상의 엄격한 조형성에서 벗어나 조각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듯한 표현을 보여준다. 또한 八角의 中臺石과 下臺石의 伏蓮臺座와 만나는 各面의 선이 약간 안으로 휘어진 曲面을 이루는 데 이와 비슷한 형식의 대좌는 榮州 浮石寺의 慈忍堂에 있는 三軀의 石造佛像중 조성시기가 가장 늦어 보이는 中央에 모셔진 불상의 대좌에서도 발견되어 신라말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요소가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양상이 아닌가 한다.²⁷⁾

이들 고려의 불상의 대체적인 특징 중에는 佛身표현에 量感이 현저히 줄어들고 약간 위축된 자세와 生氣를 잃은 佛顔에서 예배대상으로서의 神聖한 느낌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이러한 요소는 이미 신라말기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경향으로 高麗朝에 와서 더욱 심화되었다.

勤政殿回廊에 있는 原州의 두 石像과 비슷한 石造毘盧舍那佛坐像이 현재 原州의 原城郡廳 앞 公園에 옮겨져 있다고 하며 또 鐵佛도 여럿 알려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 고려시대에 어느 豪族이나 門閥貴族의 후원을 입어 불교가 융성하였던 곳이 아닌가 한다.²⁸⁾

고려시대의 석조 佛坐像들 중에는 통일신라기에 유행한 觸地印을 결합 불좌상들의 계보를 이어주는 예들도 많이 남아있다. 이 觸地印의 坐像들은 鐵佛로 제작되어 京畿道 廣州에서 傳來되는 佛像을 비롯하여 忠州지방 내지 江原道 原州지역에서도 여러 軀 전하여지고 있으나 石佛像

들은 경상도 지역에 많이 남아 있다. 그 중 경상북도 淸道郡 雲門面 雲門寺의 石造如來坐像(보물三一七)은 고려초의 대표적인 像의 하나로 臺座와 光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나 마멸이 심하고 호분이 많이 붙어 있어서 細部를 자세히 관찰할 수 없는 점이 유감이다(圖四)。本尊은 通肩의 法衣를 입었고 佛頭나 佛身의 표현에서 신라시대의 풍만감이나 위엄이 사라졌으며 光背에는 頭光의 중심에 蓮花紋、二重 內線의 외곽에만 火焰紋이 彫飾되었으나 형식에 흐르고 生動感이 줄어들었다. 臺座의 中·下臺가 六角形의 一石으로 造成된 것이 異例의이며 上臺石 仰蓮조각의 장식적인 모습에서도 高麗의 인 특징이 엿보인다.

이 雲門寺는 원래 新羅시대에는 鵠甲寺로서 중국에 유학했던 寶壤스님이 건립하였고 후에 高麗太祖가 後三國을 통일한 뒤 九三七년에 雲門禪寺란 賜額을 내리고 발 五〇〇結을 布施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三國遺事에 전한다.²⁹⁾ 또한 같은 기록에 寶壤스님과 太祖와의 관계나 雲門寺의 長生塔 禪塔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초에는 雲門寺가 경상도 지역의 중요한 절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이 절의 石佛坐像의 造成도 역사적 배경으로나 양식적인 면에서 고려초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경상도 지역에 있는 많은 觸地印의 佛坐像이 고려초기 像으로 추정되나 그중에서도 慶尙南道의 梁山 龍華寺에 있는 상은 우수한 예를 꼽을 수 있다.³⁰⁾

全羅道 지역에는 고려시대의 圓刻 石造佛像이 별로 많이 전해지지는 않으나 全羅南道 靈岩郡 郡西面의 道岬寺에 있는 石造如來坐像은 偏袒右肩의 觸地印의 像으로 역시 統一新羅期의 佛像樣式을 이어주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보물八九호, 圖五)。光背와 本尊坐像이 같은 돌로 조각되었는데 불상의 형상이 길쭉하며 光背 역시 길쭉한 타원형에 윗부분 끝이 뾰족하다. 細部 묘사는 별로 자세하지 않고 火焰文樣도 간략하고 法衣의 주름표현에는 量感이 줄어들었으나, 전체적인 비례가 어울리는 편이며 무릎의 폭이 넓고 조각표현이 단순화되어 대체로 안정된 조형

감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고려조에 와서도 신라시대에 유행한 불좌상 양식이 이어지고 있는 智拳印과 觸地印을 결한 像을 몇軀 고찰하여 보았다. 대체로 신라시대의 전통은 慶尙道、江原道뿐 아니라 全羅道에도 확산되어 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新羅末에서 일어난 형식화와 장식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면서 자율적인 표현력도 가미된 高麗의 佛像양식으로 발전하여 간 것을 알 수 있다.

(2) 石佛立像

高麗시대의 불상중 통일신라기의 불상형식을 따르는 우수한 石佛立像 중에 忠淸南道 靑陽郡 靑陽面 邑內里에 있는 三尊佛像이 있다 (보물 一九七호, 圖六)。이 像들은 현재 자기 두부분으로 금이 가 있으나 本尊의 높이가 三m나 되는 상당한 巨佛로서 비교적 頭部 및 신체의 비례가 어울리는 모습이다. 本尊의 오른손은 施無畏印을 하고 왼손은 옆으로 내려뜨렸으며 法衣는 U 形의 주름을 이루면서 佛身의 前面을 덮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이 신라불상에서는 金銅佛像에 많이 발견된다. ③ 양쪽의 협시 보살상은 서로 비슷한 형식으로 얼굴이 많이 마멸되어 표정을 알 수가 없으며 天衣가 가슴에서 대각선으로 둘러지고 다리위에 다시 두번 가로질러 늘어진 모습이나 허리에서 교차되어 늘어진 腰路장식은 통일기의 보살상 형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보살상 형식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경주 掘佛寺址의 보살상 특히 南面이나 北面의 浮彫像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④ 그러나 전체적인 조각수법으로 보아 옷주름 묘사의 量感이 현저히 줄어들어 형식적으로 흐르며 상의 자세가 경직되어 있다. 本尊의 넘직한 얼굴모습이나 강직하면서도 무표정한 인상은 佛像의 神聖한 느낌을 감소시켜준다.

이 靑陽의 상보다는 좀더 重量感이 있는 佛立像중에 忠淸北道 中原郡 新尼面 院坪里寺址에 있는 상을 들 수 있겠다(圖七)。이 像이 발견된 院坪里寺址가 가까이에 있는 큰 伽藍刹가 高麗初 光宗五年(九五四)에

창건된 國刹 崇善寺址로 확인됨에 따라 ③, 이 일대가 高麗初에는 佛敎가 번성하였던 곳임을 알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開京과 서울을 통하는 陸路의 길목에 있다.

이 院坪里의 佛像은 三·五m나 되는 巨像으로 특히 頭部위에 八角形의 寶蓋를 얹고 있어 高麗의 立石佛에 많이 나타나는 새로운 형식을 따르고 있다. 佛顔은 넘적하고 살이 전 편이며 부드러운 표정에 위엄을 갖추고 있다. 佛像의 法衣는 U형으로 늘어져 있어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靑陽의 石佛立像과 같이 統一新羅期의 佛立像形을 따르고 있다. 비교적 量感이 강조되었으며 주름의 표현은 깊게 조각되어 있다. 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왼손은 施無畏印처럼 보이나 圖像적으로는 그의 미를 정화하게 알 수 없는 애매한 형태이다. 머리에 얹혀진 寶蓋의 등장이나 手印의 어색한 형태 그리고 像의 북쪽 옆에 있는 三層石塔의 구조로 보아서 이 院坪里佛像은 고려초의 佛像으로서 신라의 전통을 잇는 비교적 우수한 예에 속한다. 같은 계통에 속하는 고려불상에는 全羅南道 羅州의 鐵川里 石佛立像(보물 四六二, 圖八)과 같은 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靑陽이나 院坪里의 像과 같이 法衣가 通肩이면서 옷 주름이 여러겹의 U형으로 늘어진 상과 같은 예는 통일신라기에 유행한 佛立像 표현의 대표적인 형식의 하나였다.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또 다른 통일신라기의 佛立像형식 중에는 慶州甘山寺址의 석조 아미타상이나 掘佛寺址四面石佛의 南面에 있는 浮彫佛立像과 같이 法衣의 주름이 양다리로 갈라져서 대칭형을 이루면서 늘어진 모습을 특징으로 하는 불상도 많이 만들어졌다. ④ 이와 같은 佛立像形式이 신라시대 말기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石佛로는 慶尙南道 醴泉 東本洞에 있는 石佛立像이나 (보물 四二七) ⑤ 慶尙南道 居昌의 陽平洞에 있는 佛立像들을 들 수 있다 (보물 三七七호). ⑥

高麗朝의 불상중에 이 두번째 形式을 계승하는 像중에는 全羅南道 南原의 萬福寺址에 남아있는 如來立像이 秀作에 속한다(보물 四三호, 圖

九、一〇)。이 萬福寺址는 一九七九년에 시작된 발굴에 의하여 이 절터의 규모가 어느정도 밝혀졌으며,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통해 高麗文宗(一〇四七—一〇八二)때에 창건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8 기록에는 三十五尺의 三尊銅佛像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깨어진 臺座만이 남아 있고 本堂 옆에 남아있는 이 石造如來立像의 造成시기는 절의 창건 연대나 양식적인 고찰에 의하여 十一세기의 상으로 추정하여도 무난한 것이다.

이 萬福寺址像은 높이 약 2m로서 팔과 다리 부분을 잃어버렸고 얼굴과 像身에는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 다행히 최근 全北대학교 발굴팀에 의하여 깨어졌던 光背 뒷부분이 발견되어 복원시켜 없혀져 있다.

佛像의 얼굴은 타원형으로 통통한 편이고 표정도 온화하여, 위엄과 자비가 어려있는 佛顏임을 느끼게 한다. 法衣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신라기의 掘佛寺址의 南面佛像의 形式을 따르면서도 목둘레에서 양어깨로 펼쳐진 衣紋형태는 정통적인 신라식 法衣形式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요소이다.

擧身光背에 浮彫된 蓮枝의 장식 문양은 類例가 드물 정도로 정교하여 가장자리의 火焰文이나 頭光中心에 蓮花紋이 밀집하여 처리된 모습이 약간 형식에 흐르나 高麗시대에 들어가서도 어느정도 고려적인 불상양식이 정착된 시기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이 光背의 뒷면에는 線刻으로 표현된 佛坐像이 있는데 頭光과 身光의 둘레가 火焰紋으로 장식되어 있으나 현재 이 상을 보호하고 있는 殿閣의 木柵에 가려서 더 자세히 고찰하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앞으로의 자세한 조사가 기대된다. (圖十一)

위의 萬福寺址의 像이 新羅의 인 조형 감각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때에 비슷한 形式에서 출발하였으나 많은 변형이 이루어진 고려시대의 像으로 忠淸南道 牙山郡 松岳面 坪村里의 石造藥師佛立像(보물 五三六호)을 들 수 있겠다(圖一二)。이 상은 높이 五·四五m의 巨佛로서 佛顏의 모습이 비교적 平溫하고 부드러운 편이며 손에는 藥盒이 들려있어 藥師佛

임을 알 수 있다.

이 藥師佛의 표현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法衣의 옷주름 형태에 있다. 通肩으로 걸쳐진 옷의 늘어진 주름은 별로 신체적인 구조의 특징도 없이 기둥같이 생긴 佛身위에 물결같은 곡선으로 표현되었는데 左右대칭이고 장식성이 강하다. 특히 양 무릎 위에 형성된 몇개의 同心圓形 주름은 그 先例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個性이 강한 새로운 표현으로, 바로 고려불상 양식에 보이는 독자성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衣紋처리에는 앞서 景福宮의 근정전 回廊에 있는 原州傳來의 智拳印佛坐像에서도 볼 수 있는데 두 像 사이에 어떤 관련을 짓기보다는, 주어진 模型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佛像形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약간의 조각가의 창의성도 반영되어 형성된 고려시대적인 불상양식성립의 한 특징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려초기의 신라적인 보수성이 어느 정도 사라져가는 시기의 像으로 생각될 수 있다.

(3) 菩薩立像

고려의 보살상 역시 佛像의 경우처럼 巨石에 조각한 예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초기에는 統一新羅期의 形式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細部묘사에 圖式化 경향이 강해지고 彫刻技法의 세련미가 부족하여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앞서 살펴본 忠南 靑陽의 三尊佛의 菩薩像은 아직도 形式이나 조각수법상에 統一新羅의 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데 비하여 慶尙南道 居昌郡 居昌邑 上洞의 觀音菩薩立像(보물 三七八호) 많은 高麗化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圖一三)。왼손을 가슴 위로 올리고 蓮峯을 들고 있고 오른손을 옆으로 내려서 淨瓶을 들어 觀音보살을 나타내는 것 같으나, 머리 위에는 寶冠이 없어졌다.

이 菩薩像의 침울한 얼굴표정이나 각이진 넓은 어깨, 기둥같은 몸체 표현에서 신라 보살상에서 보이는 유연성이 사라지고 고려적인 조형성이 나타나고 있다. 보살상의 天衣가 가슴위에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입혀지고 양 다리위에 걸쳐진 형태나 좌우대칭으로 도식화되어 늘어진

성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江原道지역 역시 統一新羅말기부터 불교신앙의 전파가 활발하였으며 溟州지방 일대는 신라의 豪族 溟州金氏의 후원을 받은 禪宗의 闍崛山派의 중심활동지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의 보살좌상 여러 軀가 하나의 地方 流派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양식적인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像들은 江陵의 寒松寺址전래의 大理石으로 造成된 菩薩坐像 二軀(국보 一二四호 및 보물 八一호, 圖 一五(一八)와 神福寺址의 塔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두손을 모아 供養의 자세로 앉아있는 菩薩像(보물 八四호, 圖 一九(二一), 그리고 五臺山 月精寺의 八角石塔 앞에 역시 神福寺像과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供養보살상을로서(보물 一三九호, 圖 二二) 서로 비슷한 형식과 조각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보살상의 細部 고찰에 대하여는 이미 자세한 연구가 있어 반복하지는 않으나 ⑩ 그중에서 寒松寺址의 상은 頭部가 보존되어 있는 國立博物館의 像과 현재 江陵市廳의 公報室에 보관되어 있는 頭部가 없는 보살상과는 같은 三尊佛의 脇侍였을 것으로 보이며 본존이 毘盧舍那佛였고 두 보살상이 文殊·菩薩像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⑪

이 溟州지역의 菩薩像들은 양쪽 귀와 어깨위로 늘어진 머리카락의 표현이나 몸에 걸쳐진 天衣의 처리와 조각수법이 매우 자연스러워 아직도 統一新羅期佛像에서 보이던 生動感을 간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寒松寺址의 大理石 菩薩像이 가장 우수한 편이며 시대적으로도 가장 이른 高麗初期로 생각되며 양식적으로는 中國의 唐末에서 五代로 넘어오는 佛像조각의 양식과도 비슷한 造形感을 보여준다. ⑫

대체로 이 보살상들은 약간 부은 듯한 顔面표현에 곡선적으로 치켜올라간 가는 눈, 조그마한 입술표현에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온화한 표정의 특징이다. 특히 이들 보살상들에서는 圓筒과 같이 높게 올라간 특이한 형태의 寶冠이 보이는데, 그 原型이 높은 金銅冠의 형태를 石造로 모방한 것인지 아니면 고려시대에 사용된 특이한 冠의 모습을 따랐는지, 후

은 中國像의 영향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국립 박물관에 있는 寒松寺址 像의 머리 및 뒷부분을 보면 冠의 형태가 완전 圓筒이 아닌 것도 알 수 있다(圖 十八) 또한 神福寺像의 경우와 같이 그 圓筒形 冠위에 八角의 寶蓋가 얹혀져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와같이 四角내지 八角의 寶蓋가 머리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은 앞서 院坪리의 佛立像에서도 발견되었으며(圖 八) 高麗佛像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형식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의 佛像圖像에서는 類例를 찾아볼 수 없으며 風雨와 같은 자연현상으로부터 像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고려적인 특수한 의미가 부여된 토착성의 반영이었는지 역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이다.

神福寺와 月精寺의 像은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塔앞에 꿇어앉아 두손을 앞에 모은 모습이 마치 어떤 持物을 들고서 供養을 하는 자세 같으나 이 역시 어떤 圖像의 해석을 위한 類例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와 비슷한 자세의 공양보살상이 뒤에 관찰할 忠淸南道 連山의 開泰寺址에서 탑과 같이 발견되었다가 현재는 옛 절터의 산기슭에 있는 암자에 모셔져 있다(圖 二六)。後述할 이 像은 寒松寺나 月精寺의 상보다는 크기가 작고 조각솜씨도 떨어져나 이 像이 開泰寺의 창건연대인 太祖年間(九三六~九四〇년) 전후의 造像이라고 본다면 이 특이한 형태의 供養像이 고려초기에 유행하였다는 假說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溟州의 新羅豪族 王順式이 太祖의 통일업적과 後百濟 甄萱의 아들 神劍討伐과 진밀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두 지역의 공동된 供養자세의 상의 출현도 어느정도 이해될 수 있다고 보겠다. ⑬

(2) 忠淸道지역의 巨石 佛菩薩立像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조성되는 불상이 巨大하여지는 경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도 있는데 이러한 巨石佛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무래도 論山의 灌燭寺의 一八·一二m 크기의 恩津彌勒으로 불리우는 보살

상(보물 二一八호, 圖 二八·二九)과 扶餘大鳥寺에 있는 一〇m의 彌勒菩薩立像(보물 二一七, 圖 三〇)이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連山의 開泰寺址에 남아 있는 三尊佛像으로(보물 二一九호, 圖 二三, 二五) 本尊이 四·一五m로서 다른 像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나 이 절이 太祖時에 創建되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으므로 역시 중요한 상이다.

이들 巨石佛像들의 특징은 그 크기가 압도적일 뿐 아니라 그 표현에 있어서도 新羅後期에까지 알려져 왔던 불상양식과의 관련도 별로 보이지 않으며 高麗初의 다른 佛像과의 유사성도 찾기 어려울 만큼 그 표현에 독자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가) 連山 開泰寺 三尊佛像

忠清南道 論山郡 連山面 天護里의 開泰寺는 高麗 太祖 在位時 건립으로 알려져 있다. 崔滋의 「補閑集」에 보이는 이 절 創建에 대한 내력에 의하면 王建이 九三六년 後百濟를 멸망시킨 후 그 격전의 장소에 開泰寺를 지어 太祖 二三年(九四〇)에 落成하였으며 華嚴道場을 위하여 친히 쓴 疏文에 의하면 統一의 偉業이 佛聖과 山靈의 도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믿고 있어, 高麗의 佛教信仰에 흡수된 전통적인 巫俗적 山神 신앙의 일면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5

이 절터에서 발견된 石造三尊佛像이 創建時의 佛像이었던지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상의 크기로 보나 다른 佛像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서 대체로 창건당시인 一〇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되며 華嚴法會를 열었다는 기록을 통해 毘盧舍那三尊佛像으로 造成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47

本尊佛像은 右肩偏袒의 法衣를 입었으며 납작한 세모형의 얼굴에 두 손이 유난히 크게 표현되었으나 手印의 의미는 불확실하다. 佛身의 굴곡도 별로 특징지어지지 않은 기동감은 형비이며 몇줄의 납작한 주름만이 간략하게 표시되었다. 양 협시 보살상은 三·二一m의 크기이며 왼쪽 협시상의 頭部는 後補이다. 보살상의 手印의 반쯤 구부린 손가락

모습은 持物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닌 애매한 형태이다. 天衣를 몸에 두른 모습이나 裳衣의 주름형태나 띠매듭의 처리등에서 어렴풋이 통일신라기 보살상의 형태가 연상되나 직접적인 模型을 찾기 어려울 만큼 圖式化와 장식성이 혼합된 새로운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佛像의 顔面은 납작하고 마치 가면을 쓴듯이 표정이 없으며 옷과 신체 구조와의 有機的 관련성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걸쳐져만 있고 투박하게 조각된 다리는 무중한 像의 무게를 받치고 있다.

이 開泰寺址에서 발견된 三尊佛像에 대하여는 이미 자세한 연구가 있었고, 또 절터의 塔앞에 있었다는 供養坐像과 神福寺址와 月精寺 塔앞의 供養坐像과의 類似性에 대하여서도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만일 이 開泰寺 三尊이 創建時에 造成된 像으로 확인된다면 고려초기의 불상양식 연구에는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한편 太祖가 發願하였고 新羅가 망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은 一〇세기 전반에 통일신라와 이어지는 불상양식의 계보와는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조각기술면에서도 훨씬 떨어지는 巨石佛像이 造成되었던 배경에는 역시 고려의 불교사회가 큼 단단한 기반이 세워지지 않았음을 추측케 한다.

(나) 論山 灌燭寺 菩薩立像

이 灌燭寺의 大形 菩薩立像은 예로부터 恩津彌勒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상이다(보물 二一八호, 圖 二八·二九). 一八·一二m라는 壯大한 크기로 頭部와 胴體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비교적 丸味感이 강조되는 두 손의 표현에 비하여 얼굴이나 胴體의 조각에 生動感이 전혀 보이지 않고, 上體, 下體 그리고 양손의 四大巨石을 이어서 만든 기동 같은 몸체에 法衣의 衣紋도 간략하고 平面的이다. 圖像面에서 보면 菩薩像 특유의 모습이 아니고 手印도 마치 阿彌陀佛의 中品下生印을 한 것 같이 보이나 오른손에는 蓮花가지를 들고 있고 이마 위의 머리카락의 곡선적인 표현이나 세줄로 늘어진 머리갈래가 귀 위를 덮으면서 표시된 것

을 보면 원래부터菩薩形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머리 위에 올려진 二層의 大形 高冠은 역시 신라시대에는 類例가 없었던 새로운 圖像으로 앞서 神福寺址의 供養보살상이나 院坪里寺址의 石佛立像에서 보이던 寶蓋들과 같이 高麗佛像에 보이는 특이한 형태중에 하나이다. 이 高冠이 佛像을 보호한다는 목적 이외에 塔形을 나타내다든지 혹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었는지 현 단계로서는 알기 어려운 문제이나, 고려적인 불상형식의 어떤 토착적인 의미가 있었는지는 연구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상의 얼굴과 高冠사이의 부분이 거칠게 처리되어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사이에 원래는 三尺의 金銅立像이 있었다는 보고를 참작한다면, 혹은 圓筒形金屬製寶冠으로 둘러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렇다면 원래 觀音像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⁴⁸⁾

이 灌燭寺에 대하여는 「東國輿地勝覽」卷第十八 恩津條에 보면 般若山에 높이 五〇尺의 石彌勒이 있는데 高麗 光宗朝(九五〇~九七五)에 僧慧明이 大石을 얻어서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상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⁹⁾ 이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朝鮮朝 英祖二〇年(一七四四)記의 寺蹟碑에 전하는데 光宗一九年(九六八)에 般若山 기슭에서 巨石을 얻어 僧慧明이 二一年 庚午年(九七〇)에서 丙午年(一〇〇六)까지 三七년에 걸쳐 완성되었고, 큰돌을 올려놓기 위하여 그 옆에 토담을 쌓아서 세우게 된 내력과, 그후 朝鮮朝에 까지 改修된 기록이 적혀있다.⁵⁰⁾ 이러한 내용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좀더 考證이 있어야겠으나 대체로 이像이 光宗代 즉, 一〇세기 후반에 造成되었다는 사실에는 일치하고 있다.

이 灌燭寺像은 그 크기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으로 佛像에배의 畏敬心を 돋우어주는 신앙적인 효과도 매우 컸을 것이다. 예로부터 이 恩津彌勒像과 관련된 여러 民間說話와 더불어 高麗以來로 불상이 일반 대중의 民間信仰의 예배대상으로도 믿어져 대부분 彌勒像이라고 傳稱되어 오는 경향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現存 國內 最大의 高麗朝

彌勒菩薩像으로서 중요하다 하겠다.

(다) 扶餘 大鳥寺 彌勒菩薩立像

忠清道 지역에 남아있는 고려의 巨石佛중에 또 다른 대표적인 像으로 扶餘郡 林川面 舊校里에 있는 大鳥寺의 높이 一〇m의 菩薩像을 들 수 있다(보물 二一七호, 圖三〇)。이 菩薩像 역시 傳稱 彌勒보살로서 앞서의 灌燭寺의 像과 같이 圓筒形冠위에 二重의 비모난 寶蓋가 있으며 衣紋의 주름 형태로 보아서는 菩薩像 표현이라는 특징이 없으나 머리 위에 늘어진 頭髮의 표시나 목에 浮彫로 드러워진 목걸이 표현에서 菩薩像임이 보다 확실해진다. 두 손에 걸쳐서 金屬으로 된 蓮花와 그 줄기를 쥐고 있으며 손의 어색한 모습이나 扁平한 衣紋의 표현이 대체로 그 조각수법면에서 方長形의 巨石材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 채 磨崖佛像 표현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灌燭寺의 菩薩像에 비해서도 立體的인 효과가 훨씬 감소되었으며 시대적으로도 약간 뒤떨어지는 상으로 생각된다.

(3) 忠清·全羅道지역의 特異形 佛像

忠清道지역에 남아있는 一〇m가 넘는 巨石佛立像중에서 가장 특이한 형태의 高麗佛이 바로 이 槐山 彌勒里의 彌勒大院에 있는 石造佛像이다(보물 九六, 圖三一, 三二)。⁵¹⁾ 石窟形을 모방하여 築造한 지붕이 없는 方形 石室에 六個의 돌을 쌓아 올려 造成된 이 佛像은 螺髮표현이 된 頭部위에 八角形의 寶蓋가 없혀져 있고 간략하게 浮彫로 표현된 손 모습 중 왼손에는 藥壺라기보다 寶珠에 가까운 형태의 持物을 들고 있다. 佛像이 寶珠를 쥐고 있는 경우 三國時代의 佛像에서는 藥師佛로 불리운다. 그러나 이 경우 傳來되어 오는 彌勒佛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인지는 알 수 없으나 傳統的인 佛教圖像에서 벗어난 高麗의 新 새로운 해석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이彌勒大院의佛像은 앞서 살펴본 忠淸道지역의 巨石佛像에서는 가장 조각수법이 떨어진다. 납작한 假面같은 얼굴에 耳目口鼻의 표현이 형식적이며 身體의 굴곡이나 法衣의 衣紋이 거의 생략되다시피한 돌 기둥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얼굴표현에만은 특별한 정성을 쏟은 듯 하나 역시 굳어진 표정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彌勒大院의佛像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佛教圖像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高麗時代의 特異形 佛像중에는 대표적인像이다.

이와같이 特異形 佛像의 유행에는 像의 造成을 發願하는 僧侶나 施主者 혹은 조각가가 그 模型을 구할 때에 前代의 新羅佛像이나 中國의 例 또는 당시의 좀더 正統계열의 佛像形에서 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기둥같은 돌위에 佛像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佛頭와 커다란 손만을 표시한 채 자유로이 造成한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佛像形은 더욱 단순화와 土着化가 진행되어 거의 장승과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으며 흔히 머리 위에는 方形이나 八角의 寶蓋 또는 板石을 쓰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特異形 佛像중에는 忠淸南道禮山 插橋面 新里에 있는 佛立像이나 (보물 五〇八호, 圖三三), 唐津郡 貞美面 壽堂里 安國寺址의 石佛立像(보물 一〇〇호, 圖三四)을 들 수 있다. 대략 五m 높이의 돌기둥형태로서 불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간략하게 표현된 像들이다.

이러한 지역성이 강한 대부분의 불상은 마을에서는 彌勒佛로 불리우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土俗적인 民間신앙과 결합된 예배대상의 성격에서 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⑤ 원래 불교에서의 彌勒佛은 未來佛로서 彌勒淨土 往生을 회구하며 미륵이 이 세상에 下生할 때에 만나기를 기원하여 삼국시대부터 널리 숭앙되어 왔다. 특히 後三國의 弓裔는(九一八) 자신이 스스로 彌勒佛로 칭하면서 佛教의 彌勒信仰을 빗자現 實세계의 개혁자로서 등장하였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고려의 불교신앙이 보편화되고 基低層에도 넓게 퍼

지면서 祈福信仰의인 성격을 띠는 大衆佛敎로 발전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그들에게는 佛敎尊像의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관심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의미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特異形 佛像形態를 빌은 예배대상으로서 조성하였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⑥

忠淸道지역 뿐만 아니라 全羅道지역에도 이러한 特異形 佛像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全羅北道 益山郡 金馬面 古都里的 石佛立像二軀이다(보물 四六六호(圖三五)). 이 두 像은 약 二〇〇m의 거리를 두고 장승같은 돌기둥 위에 方形板石을 얹은 채 넓은 들에 마주 서 있는데 크기도 약간 다르며, 마치 그 지역을 지키는 男·女守護神과 같은 인상을 준다. 종래의 불상의 圖像기준으로서는 이해가 안되고 시대추정도 어려우나 대체로 고려중기 이후로 내려보아도 좋겠다.

이러한 특이한 불상군의 대표적인 예가 全羅南道 和順郡 多塔峰의 千佛千塔으로 알려진 雲住寺址에 흩어져있는 불상군이다(圖 三六). ⑦ 이곳에는 각종형의 塔뿐만 아니라 절터와 산 주변에 크고 작은 불상이 七〇여구 조사되었는데 手印은 대체로 몇가지로 구분되나 어느 불교도상에서도 보기 어려운 새로운 모습이며 그 조각수법도 치졸하고 平面的이다. 이 또한 지방색이 가미되어 토속신앙적 형태로 만들어진 불상인 것 같다. 이 雲住寺址 불상군중에서 가장 크고 특이한 상은 나즈막한 野山위에 머리를 南쪽으로 향하고 길이가 一〇m가 넘는 大形 臥佛像 二軀이다(圖三七). 크기에 약간 차이가 있고 큰 像은 坐像形이고 작은 것은 立像形인데 역시 전통성을 떠난 새로운 불상형임에 틀림이 없다. ⑧

이 절은 口傳으로는 風水地理思想의 전래로 유명한 道詵國師(八二七~八九八)의 창건으로 전해지나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발굴時 出土된 遺物로 보아서는 이 절의 활동 시기가 고려초 一〇세기에서 조선시대 一五~一六세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기와의 명분에 보이는 많은 밀교계의 眞言文으로 이 절이 밀교 색채가 강했던 곳이 아닌가 한다. ⑨ 더 구체적인 史料의 뒷받침은 없으나 이 雲住寺의 石佛들은 고려시대

의 地方佛敎社會 중심의 佛像으로서는 독자성을 띤 대표적인 高麗佛이라 하겠으며 정확한 연대 추정에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4) 기타 諸佛像

이제까지 관찰한 고려의 佛像 조각은 그 표현양식도 다양하고 독자적 이면서 분포 지역도 광범위하여 양식적인 체계를 세우기가 어려운 편이다. 더우기 銘文을 동반하는 石造像도 全無하다시피하여 연대기준이 될 만한 불상도 없는 실정이다.

忠淸北道 堤川郡 寒水面 松界里 獅子頻迅寺址의 四獅子石塔 上層基壇部 中央에는 智拳印을 한 毘盧舍那佛像(圖三八)이 있는데 이 탑은 기단부에 大平二年 즉 顯宗 一三二二년에 造塔銘이 있다. ⑤ 따라서 一세기 초반에 造成된 佛像形으로는 중요하나 이상하게 머리에 두건을 쓴 것 같기도하고 萎縮되어 보이는 신체비례 그리고 간략한 옷주름의 처리등에서 이像이 고려시대 불상의 편년자료로서도 옳이 될 만한 대표적인 상은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高麗시대에 속하는 石佛坐像중에는 大理石으로 된 우수한 彫像이 國立中央博物館에 있다(圖三九). 이 像은 江原道 高成郡에서 傳來되었다고 하나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길이 없다. 通肩의 法衣가 어깨 위에 접혀져서 내려오는 모습이나 가슴 위에 수평으로 가로질러 입혀진 內衣와 리본모양의 띠 매듭을 통해 이 像의 系譜가 新羅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체로 遼·宋계열을 따르는 중국 불상과 유사하며 고려시대의 像중에서는 在銘보살상을 포함하여 後期에 많이 보이는 金銅菩薩像들과도 양식적으로 연결이 된다. ⑥ 그러나 이 大理石상에 보이는 조각의 단순함과 量感이 풍부한 신체묘사, 자연스럽게 늘어진 옷주름, 그리고 禪定印의 手印등에서 像의 연대가 高麗前期에 해당될 것 같으나 頭部가 결실되어 단정할 수는 없으며 晩唐·五代의 인 요소가 보이는 寒松寺址 大理石 보살상보다는 後代로 생각된다. 中國·遼·金·宋代의

불상양식이 우리나라에도 어느정도 알려져서 受容되었을 것이나 대체로 중국의 자료는 金銅이나 木造상을 위주로 연수가 되었고 石造像들은 좋은 도판이나 中共의 資料를 구하기 어려운 현 단계에서는 좀더 확실한 추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八·一五 解放 이전에 開城 天磨山의 觀音寺 窟內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石造 觀世音 半跏趺像 二軀나 ⑦ 黃海道 長淵郡 海安面 助泥洞에 있었다는 大理石 菩薩坐像이 ⑧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中國의 宋代 이후의 佛像양식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좀더 구체적인 고찰은 불가능하나 대체로 開京 주변의 사찰에 봉안되었던 佛像에는 外來요소와 수용에 보다 개방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상은 全羅北道 沃溝郡 開井面 鉢山里의 鳳林寺址 傳來의 石造三尊佛坐像으로 現在 全北大學校博物館에 있으나 별로 알려진 상은 아니다(圖四〇~四三). ⑨ 三尊이다 頭部를 缺失하였으나 조각수법은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이 세 像은 法衣의 입혀진 모습이나 天衣가 걸친 형태 그리고 光背의 장식과 手印에 있어 정동적인 佛敎圖像에서 벗어나 절충적이며 도식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고찰하여 온 고려시대 불상들의 발달과정에서 살펴본다면, 이러한 三尊상도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상에 대한 좀더 자세한 고찰을 기대하는 의도에서 이 研究에 포함시켜 보았다.

高麗의 石佛彫像연구에 참고될 수 있는 많은 상 중에는 또한 扶餘의 定林寺址의 八角石造臺座와 그 위에 놓인 石佛坐像이 있다(보물 一〇八) ⑩ 像 자체는 原形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되었으나 臺座의 형태와 장식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또 이 절터의 발굴시에 출토된 기와에 「大平八年戊辰定林寺」 즉 顯宗 一九年(一〇二八)년의 銘文이 있음으로 비슷한 臺座양식과 佛像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高麗시대 말기의 石造佛像 연구에 빠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는 현재 景福宮內에 있는 敬天寺址 石造十層塔으로의 각 多面層에 浮彫된 佛、菩薩、天部像들이다。③ 이 탑은 원래 京畿道 開豐郡 光德面 中蓮里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으로 一層塔身에 「至正八年戊子三月」의 施納紀年이 있으므로 고려말 一三四八년에 築造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탑은 多包系 목조건축양식을 모방하고 있으며 元代의 佛像양식의 영향이 고려말에 수용되는 요소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작이 될 수 있다。

IV、結語

이제까지 살펴본 高麗時代의 石造佛·菩薩像들을 통하여 볼 때 대체로 高麗佛像의 특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高麗時代에는 統一新羅시대와 같이 國家佛敎의 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信仰활동이 전개되어 갔으나 現存하는 石造佛像에 보이는 佛像造成의 특징은 뛰어난 조각수법에 있다기보다 예배자를 압도하는 거대한 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灌獨寺나 大鳥寺의 보살상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보살상에서 상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조화된 비례를 깨뜨리고 細部 표현도 소홀히 다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大形佛像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은 이 제작의 배경이 될수있는 王權의 영향력이나 지방 호족 세력형성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高麗時代의 造像활동은 또한 王都 開京뿐 아니라 全國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慶尙道와 江原道지역은 대체로 統一新羅期의 불상양식을 계승하였고 圖式化와 장식성을 첨가하여 발전하였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는 남아있는 統一新羅系의 石造像들 중에는 新羅末인지 高麗初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 지역 佛敎社會의 史料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하겠다.

한편 江原道 지역에서는 統一新羅시대부터 전통을 이어오는 溟州지방

에서 고려초기에도 불교활동의 중심지로서 우수한 菩薩像들이 제작되었고 原州지방 역시 王室이나 귀족의 후원을 입은듯 佛敎유물이 많이 남아있으며 통일신라의 양식을 좀더 발전시킨 고려적인 造形性을 보여 준다.

高麗의 佛像은 地方중심으로 확산되어 전개되었고 또 王室이나 門閥 貴族 또는 地方豪族이나 基層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신앙되어 다양한 성격을 띠며 발전함에 따라 佛像造成에 있어서도 地方化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에 특히 많이 남아 있는 특이한 형태의 불상형의 出現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들 特異形 불상들은 그 전대인 신라나 혹은 좀더 전통적인 계열의 불상양식과는 계보를 이룰수 없는 獨自性을 유지하여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우며 아마도 民間信仰적인 예배대상과 융합하여 조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대체로 石佛造像에서는 새로운 조각양식을 수용하여 표현하는 것에 대한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며 고려의 석조불상역시 예외는 아닌것 같다. 따라서 現存하는 高麗의 佛像이 신라의 전통을 이어주는 범위에서 시작하여 오랜동안 그 요소를 지니면서 변형 발전한 것은 이러한 석조상조성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開京이나 그 주변지역에서 전하는 불상의 양식에서 中國의 遼·宋·元조각의 요소가 반영된 것이 틀림이 없으나 그 영향이 크게 확산되지 않거나 고려적인 토착성과 융합되어 발전한것은 역시 앞서 언급한 地方中心的인 高麗佛敎의 성격과 石造像에 나타나는 보수성에 기인할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역시 고려말기의 金銅佛에서 統一新羅系와는 다른 새로운 佛像양식이 형성되고 그 계보 역시 中國의 상에서 출발하여 高麗的으로 변모되어 발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高麗의 佛像과 中國의 佛像과의 양식적 관계를 지적하는 것은 중국불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先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高麗의 石佛彫像의 양식적 특징과 그 계보를 밝혀보려는 노력은 자료의 부족과 筆者의 능력의 한계로 이 정도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맺고



圖 1. 青龍寺 石造毘盧舍那佛坐像、高麗初期、慶北 醴泉



圖 2. 原州傳來 石造毘盧舍那佛坐像 景福宮 勤政殿 回廊



圖 3. 石造 毘盧舍那佛坐像、統一新羅末期、國立中央博物館



圖 4 雲門寺 石造如來坐像、高麗初期 慶北 清道郡 雲門面



圖 5 道岬寺 石造如來坐像、高麗初期 全南·靈岩



圖 6. 青陽石造三尊佛立像, 高麗初期 忠南 青陽



圖 7 院坪里 石佛立像、高麗初期 忠北 中原郡



圖 8 羅州 鐵川里 石造佛立像、高麗前期、全南 羅州

圖 9. 萬福寺址 石造佛立像、高麗初期 (11세기), 全北 南原



圖 10. 萬福寺址 石造佛立像、부분



圖12 牙山坪村里 石造藥師佛立像、高麗中期、忠南 牙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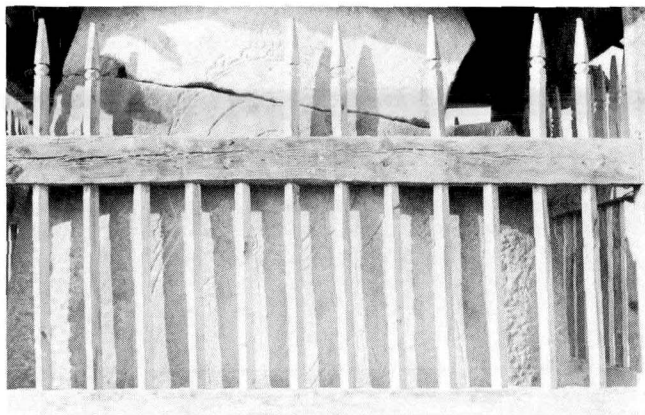


圖11 萬福寺址 石佛立像의 뒷면



圖14 咸安 大山里 石造菩薩立像、慶南 咸安、高麗中期



圖13 居昌 上洞 石造觀音菩薩立像、高麗中期、慶南 居昌



圖15 寒松寺址 石造菩薩坐像、高麗初期、江原道 江陵市廳公報室



圖16. 寒松寺址 石造菩薩坐像, 高麗初期, 江原道 江陵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圖17. 寒松寺址 石造菩薩坐像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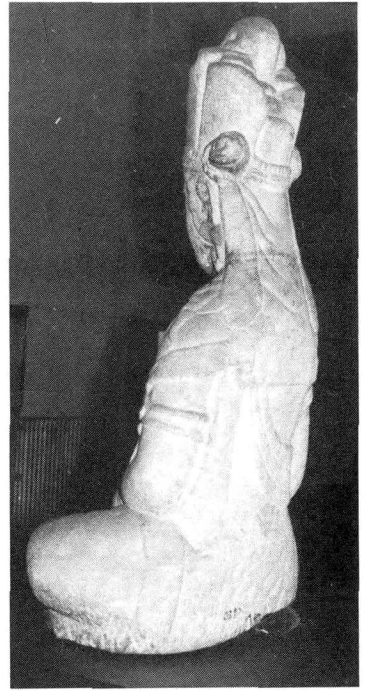


圖18. 寒松寺址 石造菩薩坐像 側面 및 背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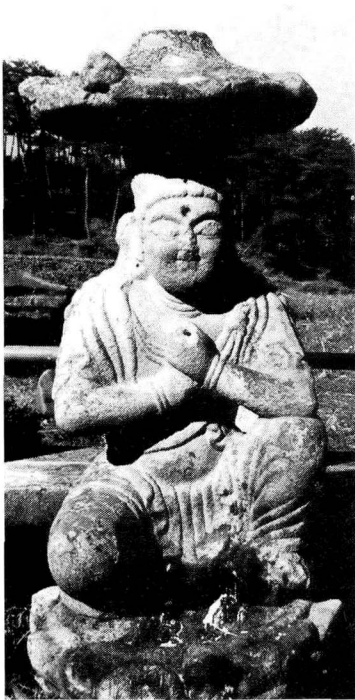


圖19. 神福寺址 石造菩薩坐像, 高麗初期 江原道 江陵



圖20. 神福寺址 石造菩薩坐像 側面



圖21. 神福寺址 石造菩薩坐像 背面



圖22 月精寺 石造菩薩坐像 高麗初期
江原道 平昌



圖23. 開泰寺址 石造三尊佛立像
本尊、高麗初期, 忠南 連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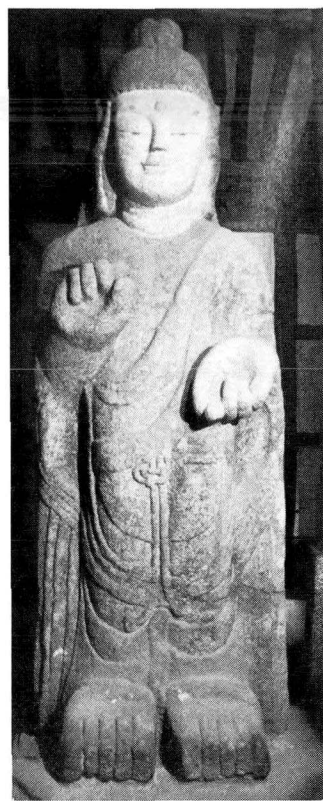


圖24. 開泰寺址 石造三尊佛立像
右脇侍菩薩, 忠南 連山



圖25. 開泰寺址 石造三尊佛立像
左脇侍菩薩, 忠南, 連山



圖26. 開泰寺址 石造三尊佛立像. (文明大 논문, 『美術資料』 29
(1981) 圖 1 에서)

圖27. 開泰寺址 石造供養坐像. 高麗初期, 忠南, 連山 (崔聖銀 사진제공)



圖29. 灌獨寺 石造菩薩立像 부분.

圖28. 灌獨寺 石造菩薩立像. 10세기 후반, 忠南 論山





圖 30 大鳥寺 石造菩薩立像 高麗前期 忠南、扶餘



圖 31 槐山 彌勒里 石佛立像 忠北、中原



圖 32 槐山 彌勒里 石造佛立像 忠北



圖 33 禮山 插橋 石造菩薩立像 忠南、禮山



圖34 安國寺址 石佛立像 忠南、唐津



圖35. 益山 古都里 石佛立像, 全北, 益山



圖36. 雲住寺址 佛像郡. 高麗後期, 全南, 和順 多塔峰



圖37 雲住寺址 石造臥佛 全南、和順 多塔峰



圖38 獅子頻迅寺址 四獅子石塔 基壇部 坐像 고려 1022년, 忠北 堤川



圖39. 江原道 高成郡 傳來 石造佛坐像.
國立中央博物館, 高麗時代 前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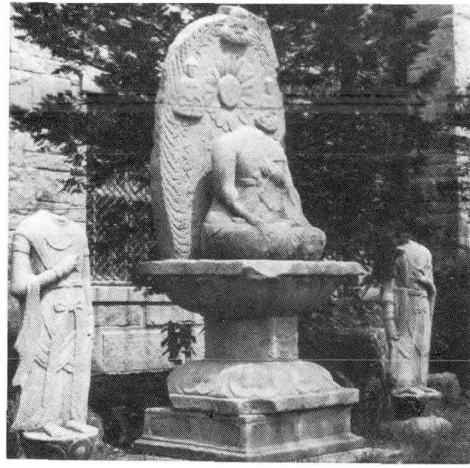


圖40 鳳林寺址 石造三尊佛坐像、高麗前期？
全北 全州 全北大學校 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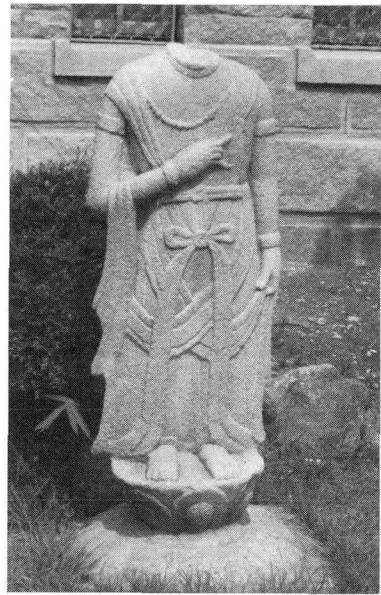


圖42 鳳林寺 石造三尊佛右脇侍菩薩像



圖41 鳳林寺址 石造三尊佛 本尊像



圖43 鳳林寺 石造三尊佛 左脇侍菩薩像

자한다. 당시의 불교사상의 전개와 불상명칭, 유력한 지방호족이나 門閥귀족의 분포와 지방양식의 성립, 또는 지방사찰에 대한 자로나 승려의 활동등과 高麗佛像 양식의 발전과 더 깊은 관련을 짓지 못한 것이 아쉬우나 앞의로의 더 많은 연구로서 보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註]

- ① 『高麗史』世家 卷第一 太祖二年條
- ② 開泰寺 華嚴法會를 위하여 太祖가 친히 쓴 願文이 崔滋『補閑集』에 있으며 筆者는 李基白·閔賢九 『史料』 본 韓國文化史』高麗篇(志社, 一九八四), p. 310의 原文과 p. 113의 번역문을 참고 하였음. 같은 내용의 『新增東國輿地勝覽』卷十八, 連山縣 佛宇 開泰寺條에도 있다.
- ③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七輯(一九七二, 三), pp. 101~112; 同著,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史學研究』二五(一九七五), pp. 1~20; 同著,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四輯(一九七八, 一), pp. 401~435.
- ④ 金杜珍, 『高麗 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 『韓國學報』一五(一九七九, 여름), pp. 43~80; 同著, 『高麗의 法相宗과 그 思想』, 『韓拏劬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知識產業社, 一九八一, pp. 215~238; 崔柄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上揭書, pp. 239~260.
- ⑤ 高麗佛敎의 전반적인 성격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고할 것 李裁昌, 『佛敎의 發達』, 국사편찬 위원회 『한국사』六, 고려 귀족사회의 문화, pp. 19~171; 安啓賢 『韓國佛敎史研究』(同和出版社, 一九八二), pp. 164~211. 특히 地理的 土俗信仰과의 결합에 관한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許興植, 『十三세기 高麗佛敎界의 새로운 傾向』, 『韓拏劬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 pp. 261~280.
- ⑥ 崔柄憲, 『天台宗의 成立』, 前掲 『한국사』六, pp. 70~106; 許興植, 『高麗前期 佛敎界와 天台宗의 形成過程』, 『韓國學報』一一(一九七八, 여름), pp. 77~210.
- ⑦ 安啓賢, 『曹溪宗과 五敎兩宗』,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七, 『무신정권과 正統』, pp. 290~334.
- ⑧ 安啓賢, 『大藏經의 雕版』, 前掲 『한국사』六, pp. 19~69.
- ⑨ 安啓賢, 『佛敎行事의 盛行』, 上掲書, pp. 107~142.
- ⑩ 宋의 元豊年間(一〇七五~一〇八五)에 興王寺의 夾形佛像이 전해지고(徐兢 『高麗圖經』第十七卷 闕宇 「王城内外諸寺」條 宋 睿宗 十三年(一一一八) 宋의 徽宗이 安和寺에 塑造羅漢像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高麗史』世家

卷 十四 睿宗十三年 夏四月條

- ⑪ 고려시대의 對중국관계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李基白, 『高麗初期에 있어서의 五代와의 關係』, 『韓國文化研究院論叢』第一輯(一九五八), pp. 3~87; 金庠基, 『丹寇와의 抗爭』, 『국사상의 제 문제』, 二호(一九五九), pp. 101~176; 全海宗, 『中世韓國貿易形態小考』 및 『麗元貿易의 性格』, 『韓國과 中國』(知識產業社, 一九七九), pp. 127~146.
- ⑫ 鄭恩雨 『高麗後期의 佛敎彫刻研究』, 『美術資料』第三三號(一九八三, 一一) pp. 33~58.
- ⑬ 이 상을인, 開城 天磨山의 觀音寺와 黃海道 長淵郡 海安面 助泥洞에 있는 상으로 보고 되었는데 統一新羅期의 상과는 연결이 안되는 中國적인 造形性의 보인다. 『朝鮮古蹟圖譜』七(一九三〇), 도판 三一七, 三一七八, 三二〇七.
- ⑭ 關野貞·竹島卓一 『遼·金時代建築と 其佛像』(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一九三四) 및 井上正 『大康十年銘多寶千佛石幢に關する基本的問題』 『佛敎藝術』九三號(一九七三, 一一), pp. 3~15. 특히 記年銘이 있는 石幢에 浮彫된 佛像은 중요한 資料가 됨; Oswald Siren, "Chinese Sculpture of the Sung Liao and Chin Dynasties. *Bulletin of the Museum of the Far Eastern Antiquities* no. 14(1942) pp. 45~64. 이 문헌의 附錄에 附載된 浮彫된 佛像은 그 후에는 대부분 松原三郎의 論文이 많다. 松原三郎 『五代造像考』, 『增訂中國佛敎彫刻史研究』(吉川弘文館, 一九六六), pp. 189~209; 同著, 『五代宋造像考』(特に如來, 菩薩の 坐像形式に 就いて) 『美術研究』二二二號(一九六三), pp. 153~163; 同著, 『宋·元彫刻の 系譜』(特に菩薩に 就いて) 『國華』八三三(一九六一), pp. 314~355; Robert Hawkins, "A Statue of Kuan-Yin: A Problem in Sung Sculpture," *Record of the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Vol. XX no. 1, (1953) pp. 3~36.
- ⑮ 四川省大足縣의 磨崖窟에는 唐宋時代の 造像이 많으며 『大足石刻藝術』(中國外文出版社, 美乃美, 一九八一)에 있다. 이외에 論文이 『文物參攷資料』一九五五, 第九期, 一五八號 第四期에 있다고 하나 未見이다. 더 자세한 것은 上掲註 ⑬의 松原三郎, 『宋元彫刻の 系譜』(特に菩薩に 就いて) p. 34, 및 註 ③ 참조 杭州에는 西湖 飛來峰에 五代부터 元代의 磨崖佛像群이 있는데 대표적인 상들이 十三세기 말에서 十四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元代의 상이다. 黃湧泉編 『杭州元代石窟藝術』中國古典藝術出版社, 北京, 一九五八.
- ⑯ 李龍範, 『元代喇嘛敎의 高麗傳來』, 『佛敎學報』第二輯(一九六四), pp. 1~60; 元代와 티베트계 불상과 고려의 불상과의 유사성에 대하여는 註 ⑫의 鄭恩雨, 前掲論文 참조. 이 문제에 대하여 앞의로 寫經 佛經 및 佛具 등의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좀더 확실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된다.

- ①7 黃壽永, 「高麗의 彫刻」, 『韓國藝術總覽』(大韓民國藝術院 一九六四), pp. 132~159; 日本人의 研究中에 中古功, 『新羅·高麗의 佛像』二支社, 一九七一年, pp. 343~394, 참조: 高麗像의 대표적인 상들이 다음책들에 수록되어 있다. 라코부, 『구로도문』제3권, 불상편(一九五九);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 寶物篇(中) 一九六九; 黃壽永, 秦弘燮, 鄭永鎬 『韓國佛像三百選』, 調査研究報告書 八二—三,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一九八二, pp. 211~280, 高麗時代, 黃壽永 編著 『國寶』 4 石佛(藝耕産業社, 一九八五) pp. 56~78; 同著 『고려시대 조각』 『韓國美術史』(大韓民國藝術院, 一九八四) pp. 299~311; 文明大 『高麗後期 端雅樣式(新古典樣式)佛像의 成立과 展開』 『古文化』 第二輯(一九八三, 五), pp. 33~72, 註 ⑫: 鄭恩雨 前掲論文 참조
- ①8 鄭永鎬, 「禮泉靑龍寺의 塔像」 『考古美術』 五〇호(제五권九호), 一九六四, 九, 『考古美術』合輯本上卷, pp. 596~570, 所收.
- ①9 黃壽永 編著 『國寶』 4 石佛, 도판 96, 97.
- ②0 上掲書, 도판 九二, 九三.
- ②1 鄭永鎬의 研究는 李弘植 『貞元廿年銘新羅梵鐘』 『國學論叢白樂階博士還甲記念論文集』(一九五五) pp. 457~491에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후의 『薄命의 新羅梵鐘』 『讀史餘滴』(潮閣, 一九六〇) pp. 60~81에서 그 발견경위 및 戰亂 후의 파편된 상태의 대항의 자제의 언급되었다. 또한 같은 鐘의 대항의 黃壽永 『雪岳山出土 新羅梵鐘調査記』 『韓國의 佛教美術』(同和出版社, 一九七四), pp. 319~327에 있다.
- ②2 鄭永鎬 責任監修 『石燈』 浮屠碑 『韓國의 美』 ⑤(中央日報社 一九八三) 도판 一〇六, 鄭永鎬 責任監修 『石塔』 『韓國의 美』 ⑨(中央日報·東洋放送 一九八〇), 三八~三九. 최근 東國大學校에서 이 절터를 발굴하여 앞으로 보고서가 기대된다.
- ②3 上掲書, 도판 三六~三七 및 前掲 『石燈·浮屠碑』, 도판 一.
- ②4 註 ③의 崔聖銀의 前掲論文 및 註 ⑮의 崔聖銀의 「溟州地方의 高麗石造菩薩像의 代한 研究」 pp. 57~59 참조.
- ②5 石造像을 원래 江原道 原州郡 本部面 本楮田洞출토와 같은 面의 傳令 傳寺址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現在는 原州市로서 洞名을 미처 찾아서 확인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朝鮮古蹟圖譜』 七 도판 三一六四~六五, 三一六六으로 실려있다.
- ②6 黃壽永 責任監修 『韓國佛教美術』佛像篇 韓國의 美 ⑩(中央日報·東洋放送 一九八〇) 도판 一三六.
- ②7 『朝鮮古蹟圖譜』 七 도판 三一六九~七〇, 三一九九~三二〇〇.
- ②8 『三國遺事』 卷四 義解第五 「寶壤梨木」條
- ③0 鄭永鎬 『梁山 龍華寺의 石造如來坐像』 『考古美術』 통권 四七·四八호(五권 六호) (一九六四, 六, 七). 『考古美術』合輯本, 上卷, pp. 53~532
- ③1 이와같은 형의 金銅佛像중의 舊東垣소장이므로 현재 國立中央博物館에 있는 두 상을 들 수 있겠다. 黃壽永 責任監修 『韓國佛教美術』佛像篇 도판 五一, 五二.
- ③2 掘佛寺址의 四面石佛의 道판은 여러곳에 실렸으나 다음책이 가장 도움이 된다. 黃壽永 編著 『國寶』 二, 金銅佛·磨崖佛(藝耕産業社, 一九八四) 道판 一三七~一三八.
- ③3 李在俊, 「高麗初期의 國刹·崇善寺址」 『空間』 Vol. 168(1981, 6) pp. 56~63.
- ③4 金理那, 「新羅甘山寺如來式佛像의 衣文と 日本佛像との 關係」 『佛教藝術』 一〇〇(一九七六, 一), pp. 3~24; 『韓國佛教美術』佛像篇 도판 四八, 五〇 참조.
- ③5 黃壽永 編著 『國寶』 四 石佛 道판 七十一, 七十二.
- ③6 上掲書, 道판 七十四.
- ③7 鄭求福 『南原 萬福寺址 第一次 發掘略報』 『古文化』 第十八輯(一九八〇, 一), pp. 48~63.
- ③8 『新增 東國輿地勝覽』 卷三十九 南原 佛宇 萬福寺條.
- ③9 鄭永鎬, 「槐山地區古蹟調査報告書」, 檀國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査報告第一冊 一九六七, pp. 65~69.
- ④0 黃壽永 編著 『國寶』 四 石佛 道판 一一八.
- ④1 註 ⑮의 崔聖銀 『溟州地方의 高麗石造菩薩像에 대한 研究』 참조
- ④2 上掲論文, pp. 64~65.
- ④3 晩唐의 代表的인 상들은 江南지방에 많이 있으며 그중 특히 四川省 郫縣의 龍興寺의 石像과 經幢이 잘 알려져 있다. 馮國定 周東欽, 胡伯祥編 『四川郫縣唐代龍興寺石刻』 中國古典藝術出版社, 北京, 一九五八. 註 ⑮의 松原三郎 前掲 『五代造像考』 및 『五代·宋造像考』 참조. 대체로 五代는 唐양식들이어 풍만해지고 量感의 풍부해지는 조형감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에서 구입하였다는 五代의 永隆元年銘(九三九)의 金銅菩薩坐像(上掲論文, 道판 一〇六)은 高麗像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寄贈 小倉ユレクシヨシ 目錄』 東京國立博物館 一九八二, 道판 五八六.
- ④4 『高麗史』 卷九十二 列傳 卷第五 「王順式」條: 溟川 豪族 王順式의 활약과 太祖 後百濟의 甄賞의 아들 神劍도 玆에 도운 내용 및 溟州 金氏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이 미 崔聖銀의 前掲論文 p. 59에 도 언급되어 있다.
- ④5 註 ② 참조 및 『高麗史』 世家 卷第二 太祖 二十三年 冬十二月條.
- ④6 고려시대의 風水地理說의 유행은 정치, 사회, 종교적인 면에 많이 영향을 끼쳤다. 『한국사』 六, Ⅲ 風水地理說 pp. 269~321, 及 李丙燾, 『高麗時代의

- 研究—특히 圖讖思想의 發展을 中心으로』, 亞細亞文化社, 改訂版. 一九八〇.
- ④7 文明大, 「開泰寺 石丈六三尊佛立像의 研究」, 『美術資料』, 第二九號(一九八一年十一月), pp. 1~11.
- ④8 註 ①7의 黃壽永, 前掲論文, p. 155.
- ④9 『新增 東國輿地勝覽』, 卷十八, 恩津 佛宇 灌燭寺.
- ⑤0 『朝鮮金石總覽』, 朝鮮總督部, 一九一九, no. 403. 恩津灌燭寺事蹟碑: 二像의 白毫 圓形銅板을 水晶으로 바꿀때 板내부에 墨書로 된 正德十六年(一五二一年)의 施主者와 比丘의 이름이 있는 그때에도 改修된 것을 알수 있다.
- 『美術資料』第二號(一九六〇, 11) p. 26.
- ⑤1 申榮勳, 「彌勒大院의 研究」, 『考古美術』, 第一四六・一四七合輯(一九八〇, 八), pp. 83~93.
- ⑤2 한국의 彌勒信仰과 高麗에 특히 유명한 民間信仰의 인 성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著書가 참고가 된다. 金三龍, 『韓國彌勒信仰의 研究』, 同和出版公社, 一九八三, pp. 148~168.
- ⑤3 이러한 배경에는 十二세기 후반과 十三세기 전반경의 고려불교의 성격을 다루는 註⑤의 許興植, 前掲論文이 참고가 된다.
- ⑤4 全南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査報告第三冊, 『雲住寺』, 一九八四, pp. 39~94. 이 절은 雲舟寺로 불리웠으나 발굴시 암막새기와 명문에 雲住寺로 적혀 있었다.
- ⑤5 上掲書 p. 48, 의 삼도 二八 및 p. 83의 사진 三五~三六
- ⑤6 上掲書 pp. 168~169.
- ⑤7 鄭永鎬 責任監修 『石塔』, 도판 101~1011
- ⑤8 崔聖銀, 「十四世紀 紀年銘 菩薩像에 대하여」, 『美術資料』, 第三二號(一九八一年六月), pp. 19~36; 註⑱, 文明大 前掲論文.
- ⑤9 『朝鮮古蹟圖譜』, 七, 도판 三一七~三二七.
- ⑥0 上掲書 도판 三二〇七.
- ⑥1 이 三尊佛像은 全北大學校 박물관 소개에 高麗前期의 상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古文化』, 第十八集(一九八〇, 六), 圖 1, 11
- ⑥2 黃壽永 編著 『國寶』, 四石佛 도판 一五四, 一五五.
- ⑥3 鄭永鎬 責任監修 『石塔』, 도판 一一九~一二〇